

退溪學의 性格과 退溪學派*

宋 秉 七**

1

이 學術大會의 主題가 '嶺南文化의 原流와 正體性'을 밝혀보자는데 있겠으나, 哲學 분야의 소주제로 배정된 退溪學도 嶺南儒學의 역사적인 系譜속에서 그 原流를 찾고 正體性을 밝히라고 요청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麗末에 性理學을 최초로 導入한 安珦(順興)에서부터, 權溥(安東), 禹倬(丹陽), 李齊賢(慶州), 朴忠佐(咸陽), 李穡(寧海), 鄭夢周(永川), 李崇仁(星州), 鄭道傳(奉化), 河崙(晉州), 權近(安東), 卞季良(密陽), 尹祥(禮泉), 吉再(海平), 金叔滋(善山), 金宗直(密陽), 金宏弼(玄風), 鄭汝昌(咸陽) 등 기라성같은 嶺南 儒學史의 인물과 계보¹⁾에 退溪를 師承관계로 연결하거나 특정 계보 속에서 退溪學의 연원을 찾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退溪가 늘 존경했고 또 退溪로 인하여 巨儒로 부각된 晦齋 李彦迪의 경우는 金宗直의 門人이었던 外叔 孫仲敦²⁾에게 배웠으니 嶺南 士林派의 계보에 연결할 수 있겠지만, 退溪를 李彦迪의 계보로 연결하는 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간접적인 관계까지 찾아 본다면 퇴계가 安珦을 享祀하는 白雲洞書院에 賜額을 請願(1549)³⁾했다던가, 禹倬선생을 享祀하는 易東書院을 建立(1566)⁴⁾한 사실이

* 이 글은 경북대학교 인문대학과 인문과학연구소 공동으로 1997년 11월에 개최한 「영남문화의 원류와 정체성」이라는 주제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

- 1) 李樹健교수는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일조각, 1997)에서, 고려·조선시대 지배세력의 지역별 姓貫분포도(p.8)와, 16세기 이래 嶺南學派를 형성했던 대표적인 在地士族의 지역별 분포도(pp.69~71), 그리고 여말 安珦에서 조선 중기 金宗直에 이르는 大學者들의 師友관계도표(p.274)등을 통해 嶺南儒學史의 人物과 系譜를 體系的으로 검토하고 있다. 李교수에 의하면 고려·조선 시대 지배세력을 형성한 名門鉅族 75개 姓貫중에 경상도가 40%에 해당하는 26개 성관을 차지하고 있다.
- 2) 孫中敦은 大司諫, 都承旨, 경상·전라·충청·함경도 觀察使를 거쳐 工曹判書, 吏曹判書를 역임한 學者로, 中宗때 清白吏에 錄選된 人物이며, 慶州 東江書院과 尙州 涑水書院에 祭享되고 있다. 『晦齋先生行狀』, 退溪先生文集 第49卷, 『退溪全書』11(退溪學研究院, 1993), pp.271~90 參照.
- 3) 退溪는 48세(1548년) 11월에 풍기군수로 부임하여 이듬해 10월에 順興 白雲洞書院의 賜額을 請願하고, 다음 달(11월)에 紹修書院이라는 扁額을 下賜받은 다음 慶尙監司에 辭狀을 올리고 落鄉했다. 『退溪先生年譜』, 『退溪學 研究論叢』제10권(慶北大 退溪研究所, 1997), pp.34~35 參照.

있지만, 결코 그들을 學問的인 私淑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었다. 한편 退溪가 선조에게 바친 「聖學十圖」⁵⁾ 第四圖에 朱子의 大學圖를 취하지 않고 權近의 大學圖를 채용한 것은 그만큼 그를 평가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退溪는 그의 「入學圖說」에 틀린 곳이 너무 많다고 비판하고 있다.

退溪는 우리나라의 理學이 '鄭夢周를 祖宗으로 삼고 金宏弼·趙光祖를 우두머리로 삼지만, 이 세분은 저술을 구할 수 없어 學問의 깊고 얇음을 알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가 하면 趙光祖에 대해서는 退溪가 「行狀」을 쓰기까지 했지만 '學問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동이 지나쳐 일을 그르쳤다고 보았으며, 徐花潭은 한마디 말에도 병통이 아닌 것이 없었고, 金宗直은 文章家에 불과했으며, 李穡은 '불교를 망녕되게 믿는 영웅'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嶺南左右道에서 退溪와 쌍벽을 이루었던 同時代의 南冥 趙植에 대해서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데만 힘을 쏟는 기이한 선비라고 규정했다. 한마디로 退溪는 '學問이 바르고 그 지식의 깊이에 있어서 近世의 第一人者'로 평가했던 李彦迪⁶⁾ 이외에는 우리나라의 儒學史에서 학문적인 존경의 대상을 찾지 못했다.

退溪의 이같은 시각은 어릴 때부터 큰 스승을 만나지 못하고 거의 獨學으로 성취했지만, 이미 그의 학문적인 수준이 120여 년의 性理學 수용사를 뛰어 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孔·孟·程·朱의 道學을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신의 묵시적인 信念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退溪는 조선조의 많은 學者들이 그러했듯이 강한 尊華主義 信念을 갖고 있었다. 그는 古代에 箕子가 우리나라에 와서 九疇로 백성을 教化하고 八條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비로소 어진 풍속이 神明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후 三國시대까지는 전쟁 때문에 道를 전하는 사람이 없었고, 三

4) 退溪는 「易東書院記」에서 禹倬선생의 만년 퇴거지인 禮安에 書院을 세우게 된 내력을 설명하고, 易은 斯文의 祖宗이며 程氏의 易傳은 先儒가 밝히지 못한 것을 發明한 것인데, 이 程易을 전수한 易東先生의 공로가 크다고 칭송하고 있다. 「易東書院記」, 文集 第42卷, 『退溪全書』10, pp.125~9 參照.

5) 退溪가 宣祖에게 바친 「聖學十圖」는 第一圖 太極圖가 周濂溪 作이고, 第二圖 西銘圖는 張橫渠 「西銘」의 내용을 요약하여 元代 程復心이 作圖한 것이며, 第三圖 小學圖는 退溪 자신이 作圖한 것이고, 第四圖 大學圖가 陽村 權近이 作圖한 것이며, 第五圖 白鹿洞規圖는 朱子가 作圖한 것, 第六圖 心統性情圖의 上·中·下圖중 上圖는 程復心 作이고, 中·下圖는 退溪가 作圖한 것, 第七圖 仁說圖는 朱子 作이고, 第八圖 心學圖는 程復心 作이며 第九圖 敬齋箴圖는 張敬夫의 主一箴을 읽고, 朱子가 요약한 내용을 王魯齋가 作圖한 것이며, 第十圖 夙興夜寐箴圖는 王魯齋의 圖를 모델로 하여 退溪가 作圖한 것이다. 「聖學十圖」, 『退溪學研究論叢』제10권, pp.415~72 參照.

6) 「論人物」言行錄 第 5卷, 『退溪全書』3, pp.198~212, 「靜庵先生行狀」文集 第48卷, 前掲書 11, pp.256~70, 「晦齋先生行狀」, 文集 第49卷, 前掲書, pp.271~89 參照.

國統一 이후 고려조를 거치면서 中國 유학생이 늘어나고 儒敎經典이 보급되면서 다시 道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中華를 사모하여 夷俗을 바꾸었기 때문에 '君子的 나라'로 불려지게 되었다⁷⁾고 주장했다.

2

退溪의 學問을 크게 보면 儒學이지만, 좁혀서 말하면 性理學이요 朱子學이며, 그 특징적인 性格은 心學에 있고 敬學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선 宋代 性理學者들이 道學의 要諦로 내세웠던 居敬·窮理, 尊德性·道問學의 논리로 본다면, 退溪는 客觀的인 知識을 추구(窮理)하는 道問學보다 도덕적인 心性修養을 추구(居敬)하는 尊德性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朱子가 이 두가지 공부방법을 수레의 두 바퀴에 비유하고 새의 두 날개에 비유하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면서도 道問學에 치중했듯이, 退溪도 두가지 공부방법을 동시에 강조하면서 尊德性에 치중하고 있었다. 退溪가 末年에 이르면 자주 道學이라는 말 대신에 心學을 쓰고, 理學이라는 말 대신에 心學을 썼던 것⁸⁾도 바로 이 같은 그의 학문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退溪心學은 南宋 말에 眞德秀(西山, 1178~1235)가 쓴 「心經」에 註釋을 붙인 明代 政敏政(?~1499)의 「心經附註」를 통해 그 단서가 열린다. 「心經」은 朱子의 再傳 제자인 眞德秀가 四書三經과 程朱의 저술에서 心學에 관한 내용을 뽑아 모은 것으로, 朱子 死後 30여 년 만에 이미 朱子직계의 學者들도 道問學보다 尊德性을 더 중시한 사람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저술이다. 退溪는 이 책을 成均館에 유학하던 23세때 처음 접했으며 '一生동안 神明처럼 믿고 嚴父처럼 받들었다'고 서술하고 있다.⁹⁾ 그리고 제자들에게 「小學」, 「大學」 다음에 「心經」을 공부하고 그

7) 이상의 내용은 1567年 退溪가 中國 사신을 接하면서, '東方에 孔孟의 心學과 箕子의 洪範 九疇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글로 써서 답변한 내용으로, 退溪는 여기서 우리나라 선비들이 누구나 孔孟程朱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왔지만 그 심오한 진리를 '능히 발명한 자가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回示詔使書」, 續集 第8卷, 前掲書 13, pp.200~2 參照.

8) 退溪는 1566年(66세)에 「心經後論」을 쓰기 2~3년 전부터 心學이라는 말을 더욱 빈번히 사용했다. 上記한 「註」, 7의 「回示詔使書」에서 中國 사신이 물었다는 '孔孟心學'이라는 말도 退溪 자신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당시의 中國 明나라에서는 王陽明의 心學이 風行天下하고 있었기 때문에 明나라 사신이 心學이라는 말을 썼다면 오히려 陽明心學을 지칭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9) 이 말은 魯齋 許衡이 '小學을 神明처럼 믿고 嚴父처럼 받들었다'고 한 말을 인용하면서 자신도 心學을 그렇게 대했다고 표현한 것이다. 「心經後論」, 文集 第41卷, 前掲書 10, pp 10~27 參照.

다음에 「論語」, 「孟子」를 공부해야 한다면, 「心經」이 「近思錄」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退溪는, 趙穆, 黃俊良 등 제자들로부터, 程敏政은 「附註」에서 朱陸同歸論者인 元代 吳澄의 說을 채용하고 있고 또 「道一篇」에서도 陸象山의 說에 同調하여 朱陸早異晚同論(朱子晚年定論)을 主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책 「心經附註」를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心經後論」을 저술(1566)하여 자신의 立場을 천명한다. 그는 「後論」에서 자신은 程敏政의 「道一篇」을 읽어보지 못해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 책은 「經文」의 내용이 모두 다 聖賢의 가르침이고 「附註」도 周張程朱에서부터 後代 賢人들의 學說까지 다 갖추고 있어 '지당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主張하고 있다. 설사 程敏政의 說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대한 聖賢들의 교훈까지 不信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들은, 退溪가 陸王心學을 비판하면서도 孟子의 道德的인 心性論에 지나치게 경도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朱子學을 벗어나 陸王心學으로 기울어 졌다는, 그래서 朱子의 性即理說과 陸王의 心即理說을 변증법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는, Charles Fu(溥偉勳)교수의 주장¹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退溪가 「心經」 마지막장(尊德性齊銘)에서 朱子晚年定論을 인정하는 程敏政의 「附註」를 보고도, 二公(吳澄과 程敏政)이 斯道(程朱學)를 구하려는 절실한 생각에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 또한 朱子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무엇이 나쁜가'고 반문하고 있어¹¹⁾, '자신도 모르게'가 아니라 어쩌면 '의식적으로' 陸王心學의 일정한 내용을 受容하고 있었는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退溪는 「傳習錄辯」을 저술(1566년)하여 陽明의 心學을 異端邪說로 규정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陽明學은 조선朝의 學界에서 발붙일 곳을 잃고 陽朱陰王之 형태로 위축되고 말았지만, 과연 退溪心學과 陽明의 心學은 전혀 유사점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서로 융합될 수 없는 별개의 사상체계인지를 한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退溪의 心이 理氣·性情으로 구분되는 二元論的인 心이고, 陽明의 心은 理氣·性情으로 구분되지 않는 一元論的인 心이라는 차이점은 있지만, 退溪의 心之體(性)가 天理를 품부받은 純善(性即理)이듯이 陽明의 心之體

10) Chales Fu, 「朱子學 계승자로서의 退溪哲學의 독창성」(原題 -The Philosophical Originality of Toegye as Chu Hsi's Successor), 「退溪學 研究論叢」제9권, pp.101~14 參照.

11) 「心經後論」, 前掲書 10, pp.10~27 參照.

(良知)도 天理를 품부받은 純善(心卽理)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退溪의 性(理)이 스스로 發하는 力動的인 主體요 道德性的의 근원이듯이 陽明의 良知도 스스로 발현하는 道德的 主體요 그 근원이기 때문이다. 다만 惡을 설명하면서, 退溪는 氣가 發할 때 中正을 얻지 못하면 惡이 된다고 하고 陽明은 意의 부정적인 속성인 私慾이 動하여 惡이 생긴다¹²⁾고 말할 뿐이다.

그러나 退溪는 陽明心學을 異端으로 규정했다. 그 까닭이 어디에 있었을까? 退溪가 「傳習錄辨」에서 陽明學을 비판한 내용은, ① 陽明의 親民論에 대하여 → 親民이라는 말은 백성과 親하라는 뜻이 아니라 明德을 밝혀서 백성을 새롭게(新)하라는 것이며, ② 陽明의 心卽理·心外無理論에 대하여 → 窮理가 곧 心의 體를 밝히고 用을 통달하게 하는 것이며, ③ 陽明의 知行合一論·致良知論에 대해 → 色을 좋아하고 향기를 좋아하는 것은 배우지 않고도 알 수 있는 形氣之心의 반응이나, 義理(善)는 배워야 알고 힘쓰지 않으면 행할 수 없다¹³⁾, 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리고 退溪는 格物의 '格'字를 朱子와 같이 이르다(至)로 해석하지만, 陽明은 바로잡는다(正)로 해석하여 格物을 正心으로 이해한다. 왜냐하면 陽明心學에서는 心外無物이고 心卽理이기 때문에 事物을 조사궁구하여 理를 밝히는 것(格物窮理)이 아니라 마음을 갈고 닦아(正心) 良知를 밝히기 때문이다.

아무튼 退溪는 ②에서 窮理가 곧 心의 體를 밝히고 用을 통달하게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어, 事物을 조사궁구하여 理를 밝히는 朱子學의 格物窮理를 陽明의 致良知와 비슷한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Fu 교수의 주장처럼 陸王心學을 비판하면서도 陸王心學으로 기울어지고 있고 朱子學을 信奉하면서도 朱子學을 벗어나고 있는 한 단면인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朱子の 太極(=理)有動靜을 自動靜으로 해석하는 그의 理氣論에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만약 心을 性情으로 구분하고 性情에 理氣를 分屬시킨 朱子學의 理氣心性論에 따라 理를 存在의 궁극적인 근거로만 확보하고 그 自發性, 自動性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純善한 理로서의 인간의 본성이 수양을 통해 구현될 수 없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또다른 어떤 힘에 의해 활동성을 부여받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退溪는 朱子の 理有動靜을 理自動靜으로 해석(太極之有動靜 太極之自動靜也)했던 것이다.¹⁴⁾ 奇高峯과의 四七論爭도

12) 陽明心學에 관해서는 筆者의 拙稿, *Philosophical Nature of Yangmyonghak*, 『現代와 宗教』(現代宗教 問題研究所, 1984), pp.245~65 參照.

13) 「傳習錄辨」, 前掲書 10, pp.35~46 參照.

14) 朱子の 理는 無情意, 無造作의 自發性이 없는 理로 설명되고 있으나, 退溪는 太極이 動하여 陽을 낳고 靜하여 陰을 낳는다는 周敦頤의 「太極圖說」에 의존하여 理(太極)가 氣(兩儀)를 낳는다고 설명하고(是言理動而氣生也), 理가 無爲라는 것은 未發의 體를 말하는 것이지 已發의 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主張한다. 「答李達·李天機」, 文集 第13卷, 『全書』4, pp.

결국은 이 理의 自動性, 自發性 때문에 야기된 논쟁인 것이다.

3

奇高峯은 鄭之雲의 「天命圖說」에서 四端은 理에서 發하고 七情은 氣에서 發한다(四端發於理 七情發於氣)를 四端은 理의 發이요 七情은 氣의 發(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로 고친¹⁵⁾ 退溪에게—, 四端과 七情은 다 情이요 情은 理와 氣의 合인데, 理만 發하면 四端이 되고 氣만 發하면 七情이 된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理는 氣에 內在하는 것인데 氣를 벗어나서 理만 따로 發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론을 제기했다.¹⁶⁾ 이에 대해 退溪는, 四端과 七情이 다 情인 것은 사실이지만, 四端은 本然之性에서 나오고 七情은 氣質之性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所從來가 다르다. 그리고 理氣는 不相離이면서도 不相雜이기 때문에 渾淪만 고 집하고 分開을 생각하지 않으면 性卽氣의 폐단이 생기고 人欲을 天理로 오해할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¹⁷⁾고 답변한다.

그러나 奇高峯은 다시, 本然之性은 명목뿐이고 실재하는 것은 氣質之性 뿐이다. 性이란 理가 氣에 墮한 것을 말하고, 情이란 그것이 發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七情이란 情의 총칭이고 四端이란 七情중에 善한 것(中節한 것)만을 가리키는 말이지 七情밖에 四端이 따로 있다는 말은 아니라고 반박한다.¹⁸⁾ 그러나 退溪는, 理와 氣는 각각의 發用이 있으며(互發) 發함에 있어서는 서로를 기다린다(相須), 서로 發用하기 때문에 각기 主하는 바(四端之發主於理 七情之發主於氣)가 있음을 알게 되고, 서로를 기다리기 때문에 理氣가 같이 있음을 알게 된다고 답변한다. 그리고 8년 간에 걸친 두사람의 왕복논쟁은, 四端은 理가 發하고 氣가 따르는 것이요 七情은 氣가 發하고 理가 타는 것(四端 理發而氣隨之 七情 氣發而理乘之)이라는 退溪의 최종적인 대답¹⁹⁾으로 끝을 맺는다.

287~90, 「答奇明彦」文集 17, 『全書』5, pp.137~93, 「論理氣」, 言行錄 第4卷, 『全書』17, pp.158~64 參照.

15) 「天命圖說後序」, 文集 41, 『全書』10, pp.7~18 參照.

16) 「上退溪先生書」, 『高峯集』韓國思想大全集 11, pp.461~2 參照.

17) 「答奇明彦書」, 文集 第 16卷, 『全書』5, pp.145~49 參照.

18) 「答退溪先生書」, 『高峯集』韓國思想大全集 11, pp.462~68 參照. 奇高峯의 이 '四七論辨' 第二書는 12個 항목 9,000語에 이르는 방대한 글로서 書信이라 하기보다는 本格的인 論文 내지는 하나의 저술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19) 「答奇明彦書」文集 第 16卷, 『全書』5, pp.225~32 參照. 退溪는 四七論辨 第二書에서부터 奇高峯이 明代 羅整庵의 『困知記』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마지막 第五書에서도 理氣를 一物로 보는 병통이 羅整庵의 죄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朱子도 理之發

우리들은 여기서, 奇高峯이 主氣論의 관점에서 理氣一元論을 주장하고 退溪가 主理論의 관점에서 理氣二元論을 주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退溪 主理論의 핵심은 四端七情論에 있고, 四端七情論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純善한 本性(理)에서 찾고 그 道德的인 主體에 能動的인 힘을 부여하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었다. 孟子가 四端을 근거로 하여 인간의 本性이 善하다고 했고 程朱가 性是 心의 體이고 四端을 포함한 情은 用이라고 했지만, 그 性이 하늘에서 부여받은(天命) 純善한 본질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형체도 그림자도 없는 理로서 마음에 갖추어진(숨어있는) 本性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善한 행위로 구현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요컨대 우리들이 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本性이 善하다는 형이상학적인 근거(所以然)를 확보하는 것으로 善한 행위(所當然)가 그대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退溪는 理動說을 축으로 한 理氣互發論과 理氣論을 매개로 한 四端七情論을 전개하면서, 四端을 확충하고 七情을 善一邊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持敬과 存養省察의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理氣를 겸하고 性情을 통솔하는 것은 心(心統性情)이다. 그런데 性이 發하여 情이 될 때 一心의 機微가 善惡으로 나누어진다. 이 때 持敬으로 한결같이 삼가하면 未發(性)에 存養의 功이 깊어지고 已發에는 省察의 노력이 능숙하게 된다. 따라서 '敬'이 聖學의 始終에 要諦가 된다.²⁰⁾ 이런 까닭으로 退溪는 居敬窮理가 서로 分離할 수 없는 유기체적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면서도 居敬으로 窮理를 포섭하는 修養論의 공부 방법에 치중한 것이다.

退溪學의 핵심은 心學에 있고 그것은 敬의 사상으로 통섭된다. 그리고 敬은 主一無適, 收斂心身, 整齊嚴肅으로 설명되고, 性과 情, 體와 用, 靜과 動을 조화하고 어긋남이 없이 통솔하는 治心の 원리인 동시에 그 실천의 방법이다.²¹⁾ 退溪는 특히 宣祖에게 바친 「聖學十圖」에서 持敬을 통한 心性修養이 지상의 과제라는 사실을 克明하게 보여주고 있다. 敬이라는 말은 北宋 초기에 周濂溪가 강조한 主靜의 개념을 程伊川이 敬으로 바꾸었고, 朱子가 다시 窮理와 並列하여 사용함으로써 修養論에 중요한 用語로 등장한 것이다.²²⁾ 그러나 退溪는 敬이라는 말에 '學'字를 첨가하여 자신의 心學체계가 바로 '敬學'에 있다고 밝히면서 이를 더욱 강화시켰다.

氣之發이라고 表現한 바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자신의 言說이 옳다고 강조하고 있다.

20) 「聖學十圖」第六圖 '心統性情圖' 『退溪學 研究論叢』제10권, pp.452~56 參照.

21) 要之 兼理氣統性情者也心 而性發爲情之際 乃一心之機微 萬仕之樞要 惡之所由分也 學者誠能一於持敬 不昧理欲而 前揭書, p.44 參照.

22) 筆者의 拙稿, 「羅整庵의 困知記와 奇高峯·李栗谷의 主氣論」, 『韓國의 哲學』(慶北大 退溪研究所, 1993) 第21號, pp 11~12 參照.

이상에서 논의한 退溪學의 性格을 간단히 요약하면, 우선 退溪는 孔孟程朱의 道가 구현되었는지 여부로 우리나라의 정신사를 평가하는 尊華主義 관점에 서있고, 그는 朱子學을 계승하면서도 道問學보다 尊德性을 더 중시했고, 學問方法으로서의 窮理도 居敬으로 포섭하는 修養論的 특징을 지니며, 道德的인 主體로서의 인간의 가치를 理動說로 강화하여 理氣性情 互發說을 내놓게 되었다. 따라서 退溪의 性卽理說은 心의 本體를 밝히는 居敬窮理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心卽理를 주장하는 陽明의 致良知說에 근접하는 결과를 빚은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退溪의 心學體系는 지금까지 陽明心學과는 전혀 다른 朱子學의 心學으로만 이해되어왔다. 아마도 많은 논란이 일겠지만, 退溪心學의 핵심적인 내용을 陽明心學과 비교하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면밀히 검토하는 새로운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4

退溪는 어린 시절 이웃집 노인에게 文字를 익히고 뚜렷한 스승도 없이 自學自習하다가, 12세 때 병으로 落鄕한 숙부 松齊公에게 『論語』를 배우면서 비로소 聖學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인근 사찰이나 청량산 등지에서 독학 勉勵하여 20세 때는 이미 '침식을 잊고' 『周易』공부에 몰두했다 할 정도로 학문이 성장했으며 21세 때는 張壽禧라는 5세 연하의 소년을 제자로 맞아들여 훈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退溪는 34세 되던 해 3월에 大科에 及第하여 從七品 承文院 權知副正字의 官職을 제수받은후 1546년에 正三品 弘文館 典翰職에 오르기까지 비교적 순탄한 승차를 거듭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부터 일기 시작한 피보래치는 정란(乙巳土禍)속에서 정치에 환멸을 느낀 퇴계는 49세 때부터 관직을 사임하고 落鄕(1549年)하여 學問연구와 후진양성에 전념하기 시작한다. 물론 退溪는 이후에도 왕명을 거역할 수 없어 여러번 入朝한 사실이 있으나 임명과 사직이 되풀이되었을 뿐 이후 70세까지 실제로 관직에 머문 기간은 총 25개월²³⁾ 정도에 불과했다. 이후 20년간 退溪는 오로지 學問 연구에 몰두하여 총 60여종의 저술을 남겼으며 도산서원에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던 것이다.

『陶山及門諸賢錄』(甲寅本)에 따르면 退溪의 弟子는 300명이 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전부(총309명)가 退溪의 學問을 계승한 學統弟子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들 중에는 退溪의 門下生으로 入門했거나, 受業·從學·師

23) 丁淳睦, 『退溪正伝』(지식산업사, 1992), pp.71~77 在職年表 및 p.125 이하 立朝 事實 참조.

事한 弟子가 아니라, 단순한 出入·來往·從遊·拜謁한 정도에 불과한 인물과 아예 師生關係를 확인할 수 없는 人物들까지 상당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아직 이 『陶山及門諸賢錄』에 등재된 인물들조차 師承關係를 정밀하게 추적하지 않은 채 退溪學派라는 말을 거리낌 없이 사용해 왔다. 우리들은 이제 嶺南學派나 畿湖學派라는 용어가 그러하듯이 지역적·혈연적인 연루관계나 정치적인 봉당關係를 통해 學派를 규정하는 종래의 인습에서 탈피해야 한다. 退溪學派를 연구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退溪弟子群의 文集부터 수집 분석하여 그 학문적인 계보를 추적하고, 다시 再傳→三傳弟子로 이어지는 學統계승關係를 정밀하게 검토하는 문헌고증학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개별연구가 축적된 연후에 退溪學派의 윤곽을 다시 그리고 또 嶺南學派라는 커다란 그림을 그리는 새로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